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개통 2035년으로 늦춰

1단계 토목공사 지연
2028년 12월로 1년 연기
양산~침단·수완~신가
2034년 4월 선개통 추진
사업비 1조5036억 증가
총 3조2430억으로 늘어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5년 늦어질 전망이다. 사업비도 당초보다 1조5036억원 늘어 3조2430억원으로 불었다. 개통 지연에 따라 양산동~침단·수완~신가지구 11.9km 구간은 전체 개통보다 1년 8개월 앞선 2034년 4월 먼저 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 해피스나CC(회장 양진석·대표이사 차재진)에서 열린 '제5회 장보고·최경주배 자선골프 대회'에서 최경주 프로와 이재만 장보고글로벌재단 수석부이사 장. 김종팔 장보고한상수상자협의회 회장 등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시상식에서는 장보고글로벌재단이 지역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한 장학금 600만원을 최경주 프로에게 전달했다. 일반 참가팀의 참가비 일부로 마련된 장학금 또한 미래 골프 유망주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해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14면



‘제5회 장보고 최경주배 자선골프대회’ 성료 5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 해피스나CC(회장 양진석·대표이사 차재진)에서 열린 ‘제5회 장보고 최경주배 자선골프대회’에서 최경주 프로와 이재만 장보고글로벌재단 수석부이사 장. 김종팔 장보고한상수상자협의회 회장 등 참가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시상식에서는 장보고글로벌재단이 지역 골프 꿈나무 육성을 위한 장학금 600만원을 최경주 프로에게 전달했다. 일반 참가팀의 참가비 일부로 마련된 장학금 또한 미래 골프 유망주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해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14면

재 공정을 점검하고 토목공사부터 건축·기계·전기·통신·신호, 차량 제작과 시험 운행까지 개통에 필요한 전체 공정을 다시 분석했다.

1단계는 예상하지 못한 암반과 지장 매설물 발견 등으로 토목공사가 지연된 데다 후속 공정에 필요한 기간까지 반영하면서 개통 시점이 늦어졌다.

2단계는 노선 일부가 변경돼 재설계 중인 13공구 수완지구 통과 구간과 5차체 유찰 이후 보완 설계 및 총사업비 협의가 진행 중인 7공구 전담대 후문 구간, 10공구

본촌산단 통과 구간 등의 공사 여건을 반영했다.

통합특별시는 2단계 전체 개통이 5년 늦어짐에 따라 일부 구간을 먼저 개통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대상은 양산동에서 침단·수완지구를 거쳐 신가지구까지 이어지는 11~14공구다. 총 11.9km에 정거장 9개소가 들어선다. 현재 공정률은 8~11%다.

이 구간은 2034년 4월 개통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2단계 전체 구간 개통 예정 시점인 2035년 12월보다 1년 8개월 앞

서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부분개통은 운행계획 변경과 총사업비 증가를 수반하는 기본계획 변경 사항이다. 통합특별시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업비 증가도 상당하다.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는 당초 1조7394억원에서 3조2430억원으로 1조5036억원 증가했다. 당초 사업비의 86.4%가 늘어난 규모다.

증가액 가운데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이 1조2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증가액의

66.6%다. 건설방식 변경으로 3547억원(23.6%), 실시설계 반영 및 현장 여건 변화로 1468억원(9.8%)이 각각 늘었다. 공사기간이 연장된 만큼 향후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사업비가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통합특별시는 앞으로 실제 남은 공정을 기준으로 개통까지의 전체 과정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개통 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공정을 집중 관리하고 연차별 투자계획도 실제 공정에 맞춰 조정할 방침이다.

매월 공정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개통

준비 과정도 단계별로 안내할 예정이다.

2단계 우선 개통 구간의 공사에 따른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도로 개방은 2030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1단계 구간은 전 구간 도로 개방을 마쳤다.

박급화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이번 검증을 계기로 공정과 사업비를 통합 관리하고 핵심 공정을 집중 관리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주요 진행 상황과 개통 준비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16일 열전’ 아시안게임 폐막…한국 종합 3위
금39·은43·동68 등 150개 수확…목표엔 금 1개 부족

32년 만에 일본에서 열린 하계 아시안게임이 16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막을 내렸다. ▶관련기사 15면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지난 4일 일본 나고야 미츠호 공영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16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한국은 금메달 39개, 은메달 43개, 동메달 68개 등 모두 150개의 메달을 획득해 중국과 일본에 이어 종합 3위를 차지했다. 목표였던 금메달 40개 이상에는 한 개가 부족했다.

전남광주 소속·출신 선수들도 힘을 보탰다. ‘베드민턴 여왕’ 안세영(삼성생명)은 여자 단식 사상 최초의 아시안게임 2연패를 달성했고, 광주 축구가 키워낸 엄지성(스완지시티)은 일본과의 남자축구 결승에서 결승골을 터뜨려 대회 4연패를 이끌었다. KIA타이거즈 김도영·박재현·성영탁은 야구 5연패를 합작했고, 근대5종 서창완(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여자농구 이해란(삼성생명)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밖에 지역 선수들은 사격과 양궁, 유도, 카누, 육상, 요트, 펜싱 등에서 메달을 보탰다. 송하중 기자 hajong2@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 교육부 판단만 남았다

병원, 목포대 집행정지 신청 각하…순천대 추천 효력 유지
통합시·순천시 신속 추진 기대…정원 배정·신설 승인 예상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순천대 추천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목포대의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되면서 의대 설립 추진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순천시는 교육부의 후속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목포대가 본안소송과 항고 검토 등 대응을 이어가기로 해 후보대학 선정 절차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다.

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목포대가 통합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통합시가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선정해 교육부에 추천한 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목포대가 이를 다룰 법률상 이익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순천대를 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추천한 통합시의 결정은 효력이 유지됐다. 통합시는 그동안 후보 선정에 대한 목포대의 반발과 법적 대응으로 후속 절차가 지연됐지만, 이번 결정으로 교육부가 의대 설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의 부담이 일부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의대 신설 논의는 지난 8월 30일 통합시가 순천대를 후보대학으로 선정하면서 대학 간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통합시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설립 계획을 심사한 뒤 순천대를 교육부에 추천했으나, 목포대는 순천대의 부지 확보 방안과 평가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선정 결과에 반발했다.

특히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 부지를 활용해 의대와 교육병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설립 요건에 맞는지, 심사 과정에서 부지 확보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했는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목포대는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그 효력을 우선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양측의 입장을 듣는 심문을 진행했다.

이번 결정으로 집행정지를 통한 절차 중단 가능성은 일단 해소됐지만, 순천대 의대 신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통합시의 추천을 토대로 신설 지역과 대학, 정원 등을 판단해야 한다. 통합시도 법원 결정 이후 정부의 신속한 후속 절차를 기대하고 있어 향후 추진 일정은 교육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 ▶2면으로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초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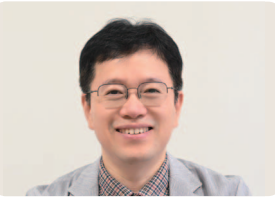
서상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생산비조차 보전 어려운 농업 ‘구조적 한계’ 돌파해야”

초대석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위원장
“전남광주 대전환 기회 경제 대도약 일어나길”

전통에 현대를 더하다

홍은진 루트메이지(주) 대표
“전통에 현대 더해 지역 문화유산 콘텐츠로”

시대공감

윤형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구청 도시재생과장
“도시를 바꾸는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

전남광주의 10월은

노래 흐르는 거리, 꽃으로 물든 강변
남도의 가을이 깊어진다

문득여행

당일치기 영암여행
문화유산이 있는
호남 대표 명촌에서 머물다

2026.10 vol. 161
세상과 함께 문화와 함께 광남일보 매거진
전라도인
구독문의:(062)370-7080 광고문의:(062)370-7070

커버스토리
임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동구청장


인문도시를 넘어 AI 경제도시로 대전환 총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동구 미래 다시 그린다
인구증가·인문도시·문화관광 등 성과 토대
민생 중심 행정·AI 헬스케어 미래 동력 육성
노포 맛집 발굴 등 원도심 상권 활성화 박차